

“피안행의 길에서 만난 염불수행...”

전국염불만일회 안동일 회장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 1940년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안동일 회장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며 4·19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통일과 노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운동을 하다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안동일 회장은 10·26사건의 김재규와 KAL기 폭파범 김현희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인권운동 이후 1993년 부친 타계를 계기로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를 시작, 본격적인 불자의 길을 걸었다. 1994년 조계종 법률 고문을 맡으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염불만일회, 붓다클럽, 중앙신도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으로 염불정진을 이끌고 있다.

염불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간절히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수행이다. 매순간 혼란하지 않는 한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다 보면 세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러한 일념 수행은 개개인에 그치지 않고, 수행에 매진하는 공동체에게까지 번져 결국 일심 정토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불교계가 혼탁할 때마다 염불결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중 '염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라 758년 발징 스님이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시작한 이래 조선 1802년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구성돼 한국불교를 쇄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많은 염불결사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를 들 수 있다. 1998년 건봉사에서 시작한 이후 이들은 매년 한차례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 철야정진에 든다. 6200여일을 맞은 7월 25일에는 예산 향천사에서 제18차 정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대회에 앞서 후반기에 접어들어 만일결사를 이끌고 있는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75·관해)을 만났다.

염불만일결사의 20여년 산증인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故김재일 법사와 함께 전국염불만일회를 이끌어온 염불정진사의 산증인이다. 2008년 김재일 법사가 타계하자 안 회장은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 염불만일회 등을 이어받아 이끌었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등은 현재 내려놓았지만 그 모태인 전국염불만일회는 직접 챙기고 있다.

“김 법사는 마지막으로 동산이 흔들림없이 재가교 육도량의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산은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불만일회는 회향하는 날 까지 쫓아다니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염불만일회의 18차 정진대회가 열린 향천사는 안 회장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안동일 회장은 대부분의 불자들처럼 어머니 대비심(大悲心) 보살의 영향이 컸다. 예산 향천사로 어머니를 따라간 안 회장은 보살 스님을 친견하고 대추씨로 만든 단주를 선물받았다. 그 것이 불자로 발을 딛는 시작이었다.

이후 안 회장의 마음 속에는 이 대추씨가 불심의 씨앗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청담 스님과 황산덕 교수, 서둔각 교수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안 회장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본격적인 불자로의 길을 걷는다.

1993년 부친의 타계가 계기였다.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죽음은 안 회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마음을 추스르고자 송광사로 단기출가한 이후 안 회장은 불교가 궁극해였다. 안 회장은 상경해 무작정 조계사로 향했다. 조계사로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서였다.

당시에는 김재일 법사가 조계사 앞에 동산불교대학을 열어 2년의 불교교육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안 이사장은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불교대학 3기를 졸업하고, 재가불자 모임인 붓다클럽 초대총재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던 때라 수업에 빠지게 되면 강의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구해 보충했습니다. 허탈감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불교공부에 완전히 빠져버렸지요. 그 전 참선·사경 등으로 다양한 수행을 해왔던 안 회장이 염불수행에 본격 매진한 것도 이때다.

“김재일 법사가 염불수행을 권했습니다. 공부와 수행은 병행해야 한다고요. 염불 수행에서는 믿음과 함께 실천 수행을 강조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발원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가짐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필요한 수행이었죠.”

안 회장은 김 법사와 뗄 수 없는 인연이었다. 이후 함께 한국재가불자연합을 만들고 염불만일회를 결사했으며, 붓다클럽도 창립했다.

**1993년 부친 타계 계기, 불교 입문
중단 법률고문 등 격변기 안정 기어
98년 개혁 당시 법 근거 사태 수습
“중도 가르침, 법치주의에도 적용돼”**

**故김재일 법사 영향, 염불결사 입계
김 법사 사후 동산반야회 시스템 구축
염불 보리심으로 대중교회 서원**

**매일 아침 108배와 1000염불 정진
2025년 12월 21일 정진회향 다짐
최근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한국인 정신의 구심점, 불교가 말아야”**

염불수행·108배 매일 아침 실천
안동일 회장은 “불교를 접하며 평생 염불로 보리심 일으켜 중생의 행복을 이끌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염불만일회 만일결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염불만일을 발원한 것은 1만일만 염불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 마디로 평생 염불하자는 것으로 만일결사가 2025년 12월 21일 회향하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하루의 시작을 염불로 맞이한다. 여기에는 동시에 108배도 진행된다. 하루에 시간 나는대로 염불을 해 1000번 이상 한다. 매일 새벽에는 달라이라마가 암송하는 기도문을 따라하고, 취침 전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즐겨 듣는다.

“바닷물에 돌을 던지면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지만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깊이 수행이 된 이는 어떤 비난이나 언사에도 동요가 없지만 수행이 덜 된 이는 곧잘 화를 내죠. 수행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 회장은 “제 수행에는 다섯가지 목표가 있다”며 “첫 째는 매일 1000번 이상 염불, 둘째는 매일 108배, 셋째는 매일 독경, 넷째는 월 1회 이상 봉사활동, 다섯째는 매월 일정액 보시 등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 회장은 바람직한 염불 방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안 회장은 “염불의 염은 이제 금(寸)자와 마음 심(心)의 합성어로 지금 이 마음을 부처님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라며 “전국염불만일회의 경우 이미타정의 육자염불을 주로 염송한다”고 소개했다.

안 회장은 “신심을 가지고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통일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다. 단체로 염불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염불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염불은 하근기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빨리 부처님께 다가가고,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다른 수행을 하는 분도 염불수행으로 꼭 정진하시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적 가치관으로 법조인 생활
신행활동이 바탕이 되어서일까. 법조인으로서 안동일 회장의 활동에서는 꾸준한 수행의 내용이 여실히 드러난다. 안동일 회장은 10·26 당시 김재규 변호사와 함께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대도 조세형 사건 등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였던 1987년에는 전두환 前대통령의 4·13호헌 조치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라는 비판성명을 내 피산하기도 했다.


“모든 사건에서 연기와 인과응보, 중도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이어져 있지요, 그렇기에 법조인은 더욱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구현에 철저히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지요.”

안 회장은 “불교적 가치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한 지혜의 보고”라며 “보이는 쪽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쪽도 헤아리는 중도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법조인은 공민이기에 어느 직업보다 지사적(志士的) 성격이 강한 선비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장사꾼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고두보 역할을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단 고문변호사로 대소사 관장
안 회장은 1994년부터 조계종 법률 고문을 하며 많은 불교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조계종 총무원사 점거 사태 당시 법적 처리였다.

“모든 법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98년 사태가 그 경우였습니다. 당시 개혁회의 측이 총무위원사를 점거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중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教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여기기에 모든 직위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정진으로 회향의 삶을”



2012년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린 전국만일염불회의 정진대회 모습. 대회에는 3000여 불자들이 매년 참여한다.



2003년 안회장이 주도한 불자모임 불타클럽 창립당시 모습.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안동일 회장 (사진 왼쪽)



2008년 동산반야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안동일 회장

있습니. 대중들 중에서는 폭력으로 뺏겼으니 다시 폭력으로 뺏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총무원장 직무대행이던 도법 스님은 제 의견을 좇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안 회장은 법원의 명도단행처분결정을 받아 공권력의 힘으로 총무원사를 다시 접수했다.

이런 법조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안 회장은 2012년 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상인 '명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한국재가불자연합회 상임회장,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이사장,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중앙신도회 고문 등도 맡고 있다.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세위

최근 안 회장은 또 다른 서원을 세운 상태다. 바로 달라이라마 방한이다. 2014년 7월 출범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에 동참한 안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달라이라마와 인연을 쌓았다. 홍콩 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을 보고 직접 친견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고,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 향했다.

여기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티벳 금강경 법문을 들었다.

“나란다 대학에서 법어번 금강경 강독도 감동스러웠지만, 달라이라마의 내공을 담은 법문은 마치 정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관정식 같았습니다. 이웃 일본은 매년 달라이라마 초청법회가 열립니다. 가톨릭 교황을 초청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회장은 “중국마저도 입장이 변하고 있다”며 “한국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외에도 법률고문을 하며 월주 스님, 고산 스님, 법장 스님, 지관 스님 등 역대 총무원장 스님의 지적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는 불교와의 인연”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티베트인들이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모치듯, 한국 또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현대에 불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면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달라이라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행복의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월호 등 다양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불자들이 함께 이 사회와 국가를 불국정토화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재가불자 “참회”에서 시작

안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고 가르쳤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정한 신앙심으로 불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회장은 “법회를 시작할 때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암송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모두가 근본으로 돌아가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불교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불교가 국민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데에는 불자들이 개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원래 불교는 4부대중인데 중단 집행부를 보면 최근에야 비구니 자리가 하나 있을 뿐이고, 재가자의 자리는 아직까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재가자의 책임이 큼니다. 기복신앙을 불교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재가자들도 기복이 아니라 중생제도를 위해 각자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불교발전은 이루어야 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보리심 일으키면 아이도 성불하니

일산의 행복문화연구소에서는 아침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매일 아침 6시 자비도량참법 기도에도 동참하기 위해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3명이 열레벨씩 달려온다. 무릎이 닳도록 오체 투지하고 목이 쉬도록 염불하고 나면 소참 법문 시간이 된다. 그럼 이 선재 동자들과 함께 참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신심 난다.

“자재 법우는 왜 아침 6시에 와서 자비도량참법을 하니?”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 극락에 태어나고 싶고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천진한 모습에 함께 정진하는 동참 대중들은 절로 웃음이 난다. 또한 이 소참 법문은 녹음되어 전국 각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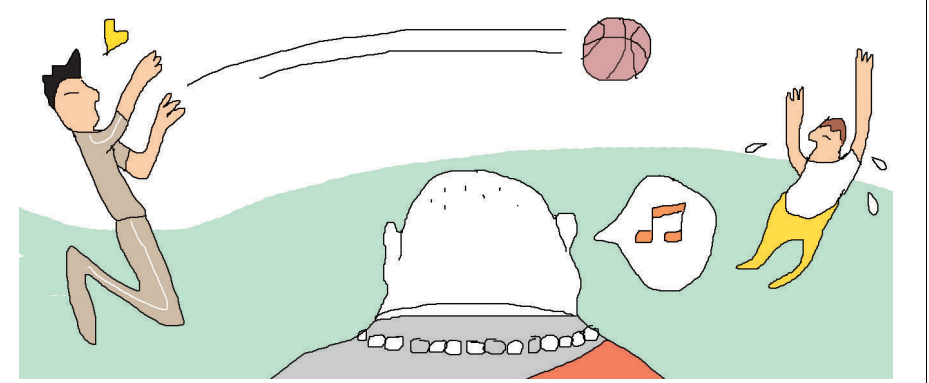
“조언해주는 대로 실천할 거지?”

“네.”

“자재 법우님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 첫째는 자비도량참법을 더욱 열심히 해서 네 마음속 동생에 대한 원결을 풀어야 되고, 둘째는 동생에게 오늘부터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기 위해 노력해서 동생을 자비도량으로 데리고 와야 돼. 알겠지?”

“네.”

자재 법우에게 동생은 원한의 대상이다. 그를 향한 분노에 자주 휩싸인다. 아무리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행보리심을 실천해도 이 깊은 원결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원결 맺힌 상태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 자신의 행복과 일체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



그림·박구원

서 함께 참법 정진하는 대중들에게 매일 공유되니 5명의 선재 동자들은 사랑받는 대중의 스타가 되었다.

자재 법우는 중학교 1학년인데 동생 위광 법우와 사이가 많이 좋다. 이미 오래된 원결이 서로에게 맺혀 있다. 이러한 자재 법우와 소참 법문 시간에 발보리심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이미 보리심을 일으켰으니 자재 보살님이 된 거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재 보살님, 일체중생에 당연히 동생 위광도 포함되는 거지?”

발보리심하여 환하게 빛나던 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정말 즉각적인 반응인데, 환하던 얼굴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눈치챌 만큼 빠르게 검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올 것 같아서 보리심 일으킨 공덕을 찬탄해주면 다시 마술처럼 얼굴이 밝아진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천진한 모습인가!

어느 날 자재 법우가 개인상담을 요청했다.

“스님, 동생과의 원결을 풀고 싶어요.”

이 원한의 관계를 풀고 싶다. 그래서 참법에 의지해서 보리심을 일으켜 동생과 함께 자비의 도량에 머물고 싶다.

동생에게 원한을 품은 ‘중생심’과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보살심’ 간에 팽팽한 줄다리를 동참대중들은 항상 목격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중생심 VS 보살심’의 줄다리는 수행하는 이들에게 보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과연 자재 법우님의 줄다리는 중생심, 보살심 누가 이길까?”

소참 법문을 듣는 모든 대중들은 아마도 보살심이 이기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원이 자재 법우님의 보리심을 키우는 촉매 역할이 되었을까? 최근 자재 법우가 동생을 대하는 모습, 자비도량참법에 임하는 자세, 일상생활의 모습과 행주좌와 간의 삼업이 점점 기록해지고 있다. 이제 곧 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참회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장흥 보림사 위패단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사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평마을로 100번